

원종계 농장의 권장보다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 취재/김종준 기자

최 근 종계사 건축시 개방계사 보다 무창계사를 선호하면서 계사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무창계사에서 사양하는 기술은 같은 종계 품종이라도 각 농장마다 다르다. 이에 따른 품종마다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품종별로 GPS 농장에서 권장하는 사양방법과 종계 사육농장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중 종계 육성에서 성계까지 분리 사육방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중시하는 사항을 점검하였다.

1. 하이브리드

산란시점을 균일하게 조정

하이브리드 품종의 대표적인 분리사육 형태는 원종계 농장에서 밝히는 모델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같은 품종을 사육하더라도 농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50평 무창계사에 1일령에 종계를 입추할 경우 종계의 체중이나 몸집에 따라 100~120평에 평당 40~70수를 입식한다. 이 면적에서 1~7주까지 사육하는데 종계 증체에 따라 2~3주령부터 사육면적을 주당 3m씩 넓혀 나간다. 8주령이 되면 가드라인을 없애고 계사 전체 면적을 이용하여 사육하는데 기간은 20주령까지이다.

20주령 이후에는 350~400평의 무창성계사로 옮겨지게

되고 수탉과 암사하는데 암수 비율은 10:1를 기준으로하되 7:1에서 12:1까지 수탉의 체중과 몸집, 건강상태에 따라 혼사 비율을 조절한다. 사육밀도는 대략 18~20수로 계절에 따라 1~3수 차이가 있다.

전체 사양관리의 키 포인트는 균일도에 있는데 육성기 때에는 체중 측정을 계사당 10% 내에서 매주 실시하여 목표 체중에 미달되는 종계가 많으면 사료량을 증가시키고 암수 합사 시기를 늦추어 체성숙을 촉진시킨다.

성계사에서는 계군의 산란시점을 맞추는데 있으므로 만약 계군중 산란하는 계군과 다른 계군과의 산란 시점에 차이가 많으면 사료량, 점등시

지 못하거나 닭의 스트레스가
간을 조절하여 산란시기로 균
일하게 맞춘다.

2. 로 스

계사면적을 넓게 활용

로스사에서 밝히는 사육방
식은 300평 육성사의 1/3 면적
에 평당 23~45수까지 1주령
까지 사육하다가 이후에 전체
계사면적을 이용하여 18주령
까지 사육한다.

18주령 이후에는 350평 성
계사로 이동하게 되는데 성계
사에는 이미 4~5일전에 입식
한 수탉과 10:1 비율로 합사
하여 평당 18~20수로 사육한
다.

한 계사에서 육추에서 성계
까지 사육하는 것은 육성을이
10~20% 떨어지기 때문에 급
기시하고 있고 되도록 초생추
부터 넓게 키워서 골격 발달
과 체중조절을 용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점등시간은 변이계수가 8~
10%이면 1일령 23시간, 3일령
19시간, 10일령~18주령까지 8
시간, 27주령부터 15시간이고
균일도가 떨어지면 성계에서
점등시간을 1~2시간 줄여 준
다.



△ 국내 실정에 맞는 종계사육 방식이 정립되어야 생산성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에이비안

주령별 사육밀도 조절에 중점

육용종계장에서 자체 개발
한 프로그램에 의하면 계사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360평
계사에 700수씩 칩가드를 설
치하여 9800수를 1주 동안 사
육한다. 2주부터는 계사의 2/3
면적에 사육하되 이 때에 칩
가드를 없애준다. 사육밀도는
폐사율을 감안하여 평당 27.2
수이다. 3주부터 18주까지 총
면적을 이용하여 사육한다. 계
군의 균일도를 보면서 성계사
로 편입시키는데 대개 18주령
이후에 성계사로 이동한다. 성
계사에서는 수탉과 합사하게
되는 암수 비율은 9:1이고 사
육밀도는 평당 20수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
한 사육밀도 유지에 역점을 둔
다. 농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많은 경우 육성사에서 5번에
걸친 사육면적을 조절해 준다.
체중관리를 위하여 10일령까지
무제한 급이, 20일령까지는 시
간제 급이, 3주이후에는 격일
급이, 14~15주부터는 5일 급
이, 18주부터는 매일 급이한다.
체중 측정은 주마다 10% 샘플
측정한다. 점등관리는 1일령 23
시간, 7일령 18시간, 14일령 12
시간, 20일령 8시간, 18주령 8시
간, 산란 5%에서 도태까지 16
시간로 조절하고 있다.

4. 아바에िका

칩가드를 효율적으로 활용

육성사 300~250사에서 60~70평 규모에서 500~600수를 칩가드에 1주간 사육하다 1주마다 칩가드를 합쳐나간다. 겨울철에는 온도를 맞추기 위하여 3주가 될 때까지 1주때 형태를 유지한다. 4주령 이후에는 전체 계사면적을 이용하여 사육하고 겨울에는 계사의 2/3만 이용하고 6주가 되면 전체 계사 면적을 이용한다. 20주령이면 성계사 옮겨지게 되고 수놈과 합사 비율은 10:1이다. 사육밀도는 암놈 기준으로 평당 13수이고 계사 규모는 300~500평이다. 목표체중은 4주령에 400g이고 16주령부터는 주당 130g씩 증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주령부터는 점등자극 뿐만 아니라 온도를 정확하게 조절해 주어 산란시에 산란율이 높아지도록 한다. 성계사사로 옮긴 후에는 육성사에서 매주 3% 범위에서 체중 측정하던 것을 2주마다 하고 36주령 이후에는 4주마다 하여 산란 피크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체중 측정 회수를 줄인다.

5. 일반적인 분리사육 형태

한계사에서 도태시까지 사육

이 농장은 품종에 관계없이 자체 경험에 의한 사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소개코자 한다. 320평 무창계사 1/4 면적에 평당 62.5수로 1일령 종계를 입식한다. 10~14일령 이후에는 전체 계사면적을 이용하여 도태시까지 사육한다. 이때에 사육밀도는 평당 암수기준 15.6수이고 암수비율은 11:1이다. 급이방법은 10주령 격일 급이, 15주령까지 주 4일 급이, 19주령까지 주 5일 급이하고 20주령부터 매일 급이한다.

점등관리는 1주령 24시간, 1주령이후-8시간, 21~22주령 14시간, 23주령 15시간, 25주령부터 도태시까지 16시간 점등한다.

품종별 공통점은 육성기에는 가스육추기를 선호하고 있고 성계사로 옮기는 시기가 18~20주령으로 비슷하다. 사양관리지침서를 참고로 하되 전적으로 농장마다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사육방식을 변형하였다.

무창계사로 된 육성사 규모는 300~400평이고 성계사는 300~600평으로 외국과 같이 소계군으로 분리 사육하지 않고, 사육방법도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종계 증체때

마다 사육면적을 넓혀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은 온도조절을 손쉽게 하고 연료비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성계사 규모가 큰 것은 계군의 관리가 용이하고 사양기구 설치가 손쉽다는 잇점과 계사를 큰 규모로 건축하면 건축비 절감과 인력절감 효과가 크다는데 있다.

생산성 위주 보다 비용절감과 인력절감을 위하여 무창계사로 바꾸거나 종계사육수수를 늘리기 위해 계사면적을 필요이상 넓히는 것은 종계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부분의 종계 사양가는 종계품종에 관계치 않고 나름대로 경험을 바탕으로 사육하고 있고, 무창계사의 장점을 잘 이용하여 사육하는 농가는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종계 분리사육 방법을 원종계 농장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농장현실에 맞게 재정립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절감과 인력절감 효과가 있다면 그간의 경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새로운 사양관리 방식을 따르도록 사양가에게 권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양계**